◈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 (2급)

1.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1) 炊湯　(2) 垂範　(3) 痲醉　(4) 繕補
(5) 旌善　(6) 李滉　(7) 蓬髮　(8) 捺染
(9) 抛棄　(10) 荒廢　(11) 鬱蒼　(12) 胃癌
(13) 閨秀　(14) 途泥　(15) 歸鄕　(16) 胎盤
(17) 紹述　(18) 紊緖　(19) 讒讀　(20) 懸哨

2. 다음 한자의 訓과 音을 쓰시오.

(1) 熔　(2) 枕　(3) 額　(4) 崇　(5) 違
(6) 竝　(7) 悼　(8) 腹　(9) 徹　(10) 雁
(11) 怡　(12) 詠　(13) 逐　(14) 森　(15) 曜
(16) 駐　(17) 獵　(18) 支　(19) 登　(20) 徵

3. 다음 글 가운데 괄호 친 한자어를 한자로 쓰시오.

(1) 전 국민의 통일에의 (열망)은 식지 않는다.
(2) 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의견이 분분하다.
(3) 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4) 첨단사회를 (주도)하는 IT산업.
(5) 신화(창조)의 비밀을 알아보자.

4. 다음 訓과 音을 지닌 한자를 쓰시오.

(1) 맛볼　상　　(2) 눈물　루
(3) 빛날　휘　　(4) 미리　예
(5) 오랑캐　이

5. 다음 한자어의 반대 또는 상대되는 한자를 쓰시오.

(1) (　) ↔ 薄　(2) 閑 ↔ (　)　(3) 進 ↔ (　)

6. 다음 한자어와 뜻이 비슷한 한자나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1) 睡 - (　) : ① 珉　② 眠　③ 垂　④ 分
(2) 淨 - (　) : ① 勵　② 靑　③ 化　④ 潔
(3) (　) - 遠 : ① 遼　② 近　③ 選　④ 追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적어 사자성어를 완성하시오.

(1) (　)膽相照　(2) 徹頭徹(　)　(3) (　)脣皓齒

8. 다음에서 장단은 관계없이 동음이의어를 쓰시오.

(1) 首都 - (　) :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2) 炊事 - (　) : 취함과 버림.
(3) 試寫 - (　) : 그 당시에 생긴 여러 가지 세상 일

9. 다음 한자어의 뜻을 고유어(순수 우리말)로 조건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1) 蔑視 - (　)여김(조건:2음절)
(2) 貯藏 - (　)리(조건:2음절)
(3) 桑葉 - 뽕(　)(조건:1음절)

10. 다음 한자의 약자를 쓰시오.

(1) 佛
(2) 歡
(3) 龜

▣ 재미있는 한자성어 ▣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낭, 가운데 중, 갈 지, 송곳 추)
직역 :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그 끝이 뾰족하여 주머니를 뚫고 나옴.
의역 : 포부와 역량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섞여 있을지라도 눈에 드러난다는 말.

모수자천(毛遂自薦)

((터럭 모, 드디어 수, 스스로 자, 천거할 천)
직역 : 모수가 스스로 자기를 천거했다는 뜻.
의역 :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것을 이르는 말.

전국 시대 말기에 조나라가 진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조나라의 재상인 평원군(平原君)이 초나라로 구원병을 청하러 가게 되었다. 평원군은 식객(食客)을 3천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당대의 어진 공자로 이른바 사군(四君)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초나라로 떠나기에 앞서 함께 떠날 사람 20명을 식객 중에서 고르기로 했다. 문무를 겸한 인사 19명을 뽑았으나 나머지 한 사람을 뽑기가 힘들었다. 이때 모수(毛遂)라는 사람이 자진해 나서며 평원군에게 청했다.

"저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평원군은 그의 얼굴조차 처음 보는 듯하여 물었다.

"그대는 내 집에 온 지 몇 해나 되었소?"

"3년쯤 되었습니다."

"무릇 현명한 선비가 세상에 있으면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그 끝이 밖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오. 그런데 3년이나 내 집에 있는 동안 그대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를 들은바가 없으니,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그대는 좀 무리일 것 같소."

그러자 모수가 말했다. "그러니 저를 오늘 주머니에 넣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를 일찍 주머니 속에 넣어 주셨더라면 끝은 물론이요 자루까지 밖으로 내밀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수도 20명 속에 끼여 초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평원군의 끈덕진 설득에도 불구하고 초왕은 진나라가 겁이 나는지라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회담이 낮이 기울도록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다.

이때 단 아래 있던 모수가 위로 올라와서 평원군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초왕이 평원군에게 물었다.

"이는 누구요?"

"제가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과인이 그대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참견인가? 어서 물러가지 못하겠는가?"

초왕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때 모수는 차고 있던 칼자루에 손을 걸친 채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대왕께서 신을 꾸짖는 것은 초나라 군사가 많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왕과 신과의 거리는 열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초나라는 땅이 넓고 군사가 강한데도 두 번, 세 번 진나라에 패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나라와 초나라가 동맹을 맺는 것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초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초왕은 모수의 위엄과 설득에 굴복하여 조나라에 구원병을 보낸다는 맹세를 하게 되었다.

평원군은 맹약을 정하고 조나라에 돌아왔다.

"나는 감히 다시는 선비의 사람됨을 아는 체하지 않겠습니다.(모수의 사람됨을 몰라보았음을 한탄함)."라고 말하여 모수를 상객(上客)으로 삼았다.

평원군이 조나라에 돌아오자 초나라에서는 춘신군을 장수로 하여 조나라를 구원하게 하고 위나라의 신릉군도 또한 왕명을 사칭하여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구원하기로 하였다.

☆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

간지(십간과 십이지)는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 속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자산(資産)이다. 인류가 날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 역법(曆法)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동양 적용해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간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함께 생활 철학(生活哲學)으로서의 간지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자.

십간(十干)의 기원과 그 의미

십간의 구체적 기원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사료(史料)들로 유추해 볼 때 중국 고대의 위서(緯書) 중의 하나인 전한(前漢) 말기에서 후한(後漢)시대에 만들어진 '하도낙서(河圖洛書)' 중에 중국 고대 복희씨(伏羲氏)가 역(易)의 팔괘(八卦)를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하도(河圖)'에 벌써 십간(十干)이 보이는 것을 보면 그 기원은 하(夏)왕조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설에 따르면 중국 한(漢)나라 때 완성된 것으로 전해옵니다. 결국 어느 한 시대의 창작물로 보기보다는 고대의 주술적 점술과 철학적 사유, 또한 문명의 발달 등이 종합된 고대 역법(曆法)의 결정체일 것이다.

10개라는 숫자의 의미는 열흘인 1순(旬)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달이 29일에서 30일 이기에 10일씩으로 나누어 3순(旬)으로 정했던 것 같다. 현재까지 상(초), 중, 하순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10일의 의미로 10개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해 온 것이다. 명칭은 처음 십간(十幹)으로 쓰이다가 십간(十干)으로 변화되었고, 점술가에 의해 오행(五行)을 결부시켜 천간(天干)으로 불리게 되었다.

십이지(十二支)의 기원과 의미

십이지 역시 중국 은(殷)왕조 때 이미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기원은 은(殷)왕조 이전인 하(夏)왕조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12라는 숫자의 사용은 1년이 12달인 것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 12라는 숫자가 2,3,4,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여서 활용이 편리하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십간(十干)이 날짜를 표시하는 부호로 사용되었다면, 십이지(十二支)는 12개의 달을 의미하는 부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십이지의 명칭은 처음에는 십이진(十二辰), 십이지(十二枝) 등으로 쓰이다가 현재의 십이지(十二支)로 변화되었고, 역시 점술가에 의해 오행(五行)이 결부된 지지(地支)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십이지에는 동물을 결합시켜 십이지수(十二支獸)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양설(陰陽說)이나 불교사상(佛敎思想) 등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며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12라는 의미에서 시간(時間)과 방위(方位)까지 결합시켜 우리의 일상에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간의 표시에서 새로운 날의 시작인 자시(子時)가 현재의 시각으로 오후 11시에 해당하기에 현재의 날짜 변경이 1시간이라는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역법(曆法)의 생성

십간(十干)의 날짜 부호와 십이지(十二支)의 달 부호의 사용 이후에 햇수의 표시 방법을 개발해 낸 것이 바로 십간과 십이지의 배합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육십갑자(六十甲子)인 것이다. 또한 날짜 표시에서도 10일까지의 표시가 반복되는 것을 보완해 햇수 표시처럼 십간과 십이지를 배합하게 되었고, 달 수의 표시도 이와 같이 해서 해마다 배당되는 갑자(甲子)를 세차(歲次)로, 달의 배당을 월건(月建)으로, 날의 배당을 일진(日辰)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일진이 나쁘다'는 표현이나 제사 축문의 '유세차(維歲次)'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간지의 생활 철학(哲學)

우리의 전통 생활에서는 간지(干支)의 활용이 역법(曆法)의 사용은 물론이고 집터나 묏자리 설정뿐만 아니라 오행(五行)과 결부된 길흉(吉凶)이나 산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삶의 철학(哲學)으로 이어져 왔다. 민간(民間)에서 우리는 사주(四柱)와 팔자(八字)를 삶의 윤활유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에서부터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활용을 하고 있다. 이 사주팔자(四柱八字)의 8자가 바로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 간지(干支)의 8자이다. 간지(干支)는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에 기본 바탕으로 이어왔기에 잃어가는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겠다.

한자 만화 코너/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스물여덟번째 마당)

◆ 다음 글을 읽고 (　)에 들어갈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① 由　② 單　③ 集　④ 關

가. 오늘은 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이다.
나. 한시간 (단)위로 종이 울린다.
다. 그 지명의 (유)래를 알게되었다.
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호전되었다.

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

◆ 다음 빈 칸에 알맞은 한자나 훈음을 쓰시오.

不		産	
	움직일 동		날 출
	禁		體
들 입		그칠 지	

한자통 hanjatong.com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2급)정답◈

1. (1) 취탕 (2) 수범 (3) 마취 (4) 선보 (5) 정선 (6) 이황 (7) 봉발 (8) 날염 (9) 포기 (10) 황폐 (11) 울창 (12) 위암 (13) 규수 (14) 도니 (15) 귀향 (16) 태반 (17) 소술 (18) 문서 (19) 구독 (20) 현초
2. (1) 녹을 용 (2) 베개 침 (3) 이마 액 (4) 높을 숭 (5) 어긋날 위 (6) 나란히 병 (7) 슬퍼할 도 (8) 배 복 (9) 통할 철 (10) 기러기 안 (11) 기쁠 이 (12) 읊을 영 (13) 쫓을 축 (14) 수풀 삼 (15) 빛날 요 (16) 머무를 주 (17) 사냥 렵 (18) 지탱할 지 (19) 오를 등 (20) 부를 징
3. (1) 熱望 (2) 建設 (3) 呼訴 (4) 主導 (5) 創造
4. (1) 嘗 (2) 淚 (3) 輝 (4) 豫 (5) 夷
5. (1) 厚 (2) 忙 (3) 退
6. (1) ② 眠 (2) ④ 潔 (3) ① 遼
7. (1) 肝 (2) 尾 (3) 丹
8. (1) 囚徒 (2) 取捨 (3) 時事
9. (1) 업신 (2) 갈무 (3) 잎
10. (1) 仏 (2) 欢 (3) 亀